

-지 마세요

~하지 마세요

-(으)세요의 부정형입니다. 한국어는 많도로 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,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별도의 동사 말다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지 마세요	가다 → 가지 마세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지 마세요	만들다 → 만들지 마세요
반말	-지 마	가지 마
격식체	-지 마십시오	가지 마십시오
청유 (~지 맙시다)	-지 맙시다	가지 맙시다
~하는 대신	-지 말고	타지 말고 걸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어간에 -지를 붙이고 말다를 활용합니다: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. 모음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간 자체도 바뀌지 않습니다.

말다의 ㄹ은 대부분의 활용형에서 탈락합니다. 그래서 말으세요가 아니라 마세요가 됩니다. 활용형은 마 (반말), 마세요 (존댓말), 마십시오 (격식체), 맙시다 (청유)입니다.

제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. 먼저 동작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. 중지 말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. 또 요청 표현이므로 사실을 서술하지 않습니다. '가지 않는다'를 말하려면 -지 않다 또는 안을 써야 합니다. 또한 한국어에서는 -지 말고를 '그렇게 하는 대신'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: 택시 타지 말고 걸어요.

■ 예문

- 1 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.
- 2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
- 3 수업 중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.
- 4 잊지 마세요.
- 5 무시하지 마십시오.
- 6 늦지 말고 오세요.

■ 비교

-(으)면 안 되다

-지 마세요는 듣는 사람에게 직접 요청하고, -(으)면 안 되다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. 안내문이나 규정에서는 주로 후자를 씁니다.

담배를 피우지 마세요. (직접 요청) /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. (허용되지 않음)

-지 않다

않다는 서술하고, 말다는 요청합니다. 명령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말다 뿐이므로 둘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.

가지 않아요. (가지 않는다) / 가지 마세요. (가지 말아 주세요)

-지 말고

연결형으로, 단순히 금지하는 대신 다른 방안을 제시할 때 씁니다. 지시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

걱정하지 마세요. / 걱정하지 말고 좀 쉬세요.

■ 주의

✗ 여기에 앉지 않으세요.

○ 여기에 앉지 마세요.

않다로는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. 금지는 공손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말다로 만듭니다.

✗ 걱정하지 말으세요.

○ 걱정하지 마세요.

말다의 ㄹ은 이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마세요가 됩니다. 마십시오와 맙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.

✗ 중지 마세요.

○ 감기 걸리지 마세요.

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만, 어떤 상태가 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형용사를 동작 동사로 바꿔 말하세요.